배우 서일성

김윤식의 인천 인물 발굴 #05

배우 서일성

『演劇市場』의
첫번공연
三十一일밤開成社

1931년 1월 31일 서울 단성사에서 열린 극단 '연극시장'의 공연 기사.
뒷줄 맨 오른쪽 키 크고 잘 생긴 인물이 서일성이 아닌가 짐작한다.

서일성(徐一星,1906~1950)은 1960년대의 명배우 신성일(申星一)에 비교할 정도의 큰 인기를 누렸던 명배우였다. 단편적으로나마 남아 있는 기록들이 그런 면을 엿보게 한다.

그러나 '인천 이야기' 기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고일 선생의 『인천석금』에서는 인천이 낳은 이 유명한 배우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. 유명한 신태범 박사의 『인천 한 세기』나 『개항 후의 인천 풍경』에도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. 다만 『인천시사』 인물란에만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. 인천 출신이면서도 서울에서만 활동했던 때문이 아닌가 싶다.

'서일성은 인천 태생으로 **1925**년 초창기 신극단 토월회에 참가하여 이백수, 윤심덕 등과 활동했다. **1935**년에는 극예술연구회에 참여하여 서울 동양극장을 중심으로 연극 활동에 매진했다. **1939**년에는 연출가 박진 등과 함께 극단 아랑을 결성했으며, **8·15** 광복 직후인 **10**월 양백명, 장진 등과 극단 백화를 창단했다. **6.25** 동란 때 주안에서 서산으로 피난을 갔으나, 북한군에게 협조하지 않아 피살당했다.

일제 때 그의 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명 연극평론가가 격찬할 정도였다고 한다. 그 혼자만으로도 부민관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후한 연기를 했다는 것이다. 톨스토이의 「부활」 버나드 쇼의 「오로라」,「춘향전」, 「박쥐의 집」, 「백의 민족」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.'

그는 미남에다가 게리 쿠퍼처럼 체구가 컸다고 한다. 그러면서도 유연했고 뛰어난 발성으로 '모범 만능'이라는 평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당시 최고의 배우였다. 인천에서 이렇다 할 만한 연극 활약은 없었다 해도 인천이 낳은 대배우, 명배우였음은 틀림이 없다.

김윤식/시인,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